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미술학석사 학위논문

개인의 이상화를 통해 모호해지는 인물형상 조각 연구

2022 년 2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조소학과 조소전공

허 태 욱

개인의 이상화를 통해 모호해지는 인물형상 조각 연구

지도교수 이 용 덕

이 논문을 미술학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대학 조소과
허 태 욱

허태욱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_____ 문주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심상용 _____ (인)

위 원 _____ 권대훈 _____ (인)

국 문 초 록

본 연구는 인물 형상 작업 시 본인이 가진 태도와 작품에 나타나는 이중성을 발견하고 그것을 조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본인은 이것이 디지털화된 현대 공유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오늘날은 자신을 표출하는 데 있어 무한한 가능성이 열린 시대이지만 그곳에 속한 개인들은 이 새롭게 변천해 가는 시대 정신에 자의로 참여한다기보다는 강제로 편입되며, 그 과정에서 공허감을 갖는다. 동시에, 개인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수평적인 시대상은 엄격함이라는 디지털 논리의 특징을 만나 그 안에서 개인은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좁아지고, 평범해지는 굴레에 들어가게 되는 듯하다. 본인의 지인들마저도 본인의 눈 앞에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분명하게 인지하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개인의 존재감은 마치 줄 없는 피노키오[1]와 같이 다가왔다. 이에 본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사람들을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되었다. 이것이 작품에 반영되어 기존의 강하고 우상적이었던 형상에서 모호한 존재감을 품기는 성향을 갖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개별 주체는 우상화된 모습을 형성토록 하지만 동시에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게 된 시대상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본론으로 넘어와 본인 또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일련의 시선을 통해 조각하는 인물 작품을 풀어내려 한다.

본인은 본 연구와 인물 형상 작업을 통해 불특정 '아무개'가 아닌, 실질

1) 1940년도에 월트 디즈니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화 <피노키오> 중 "나는 줄이 없어요."라는 노래로 피노키오는 연극 무대에 선다. 줄에 매달린 다른 목각 인형들과 아직은 완전한 아이가 되지 못한 피노키오가 같이 무대에 오른다. 다른 인형들과는 다르게 자신만 줄이 없음을 이야기하며 본인의 특별함을 노래한다. 하지만 여느 인형들처럼 피노키오도 인형임은 마찬가지. 그런 피노키오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하지만 그 안에는 조롱이 섞여 있다. 피노키오의 바람과 달리 그들과 같은 사람의 아이로 봐 주지 않는다. 줄이 없을 뿐인 똑같은 인형으로서.

적인 사람의 모습을 내포한 지인들을 통해 그 존재감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는 항상 작업 후반에 맞이해 온 허무함에서 벗어나기 위함 때문이었다. 억지로 만들어낸 허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찾고 싶었다. 비록 지인들 또한 대면하는 관계에서 파생된 채로 본인의 눈앞에 있지만 완전한 미지의 영역은 아니었다. 흙으로 빚으며 최대한으로 실체적인 개별 형상들을 포착하고자 하였다. 후에 모든 형상을 시멘트로 전환하고 그 물질과 같은 공간에 놓으며, 최종적으로 자연스러운 상태의 존재감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인물상을 마주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럽고 편안한 개인을 의식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이다. 나아가 궁극적으로 본인은 현 시대에서 개인의 '드러내'진 않지만 '드러나'는, '보여주진' 않지만 '보이는', '구별'되나 '모호한' 반딧불이와 같은 존재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그 모호한 존재감을 본인의 작품을 통해 형상화하고자 한다.

주요어 : 공유, 포토제닉, 이상화, 허깨비, 탈색
학 번 : 2018 - 23245

목 차

서 론 ····· 1

본 론 ····· 6

1. 포토제닉 ····· 7
2. 작업에 관하여 ····· 10
   1) 제시된 얼굴 ····· 12
   2) 사진으로 보는 대상 ····· 15
3. 인물형상 ····· 17
   1) 탈색 ····· 20

결 론 ····· 23

참고문헌 ····· 25
Abstract ····· 26

서 론

사유하는 가치는 디지털화 되어 세계 어디에든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실체적, 물체적인 것을 뛰어 넘은 요즘이다. 혼자 만든 노래가 어느 날 길거리에서 들리게 되었고, 외톨이 인줄 알았으나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며 거대한 집단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self-appeal'을 하며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황금기. 우리의 존재지위는 넓혀졌다. 존재의 지위는 수직적이기 보다 수평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우리들은 같이 '공유'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시행착오를 겪고, 동조와 반대비판의 과정을 거쳐서 많은 동의를 받은 가치관, 기준, 규범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계속해서 형성되고 있다. 그에 따라 우리는 우상과 마음을 표상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리고 이는 점점 상향평준화시키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사람만이 아닌 범(凡)인에 속하는 누구나가 저 화면에 보일 수 있고 보여 질 수 있으며 드러나 지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이미지는 보급되는 일방향성에서 공유하는 상호작용의 양방향성을 가지게 된다. 수평적이다. 더욱이 '공유사회'의 속성과 디지털 플랫폼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다. Y세대라고 일컬어지는 본인의 경험을 보아도 저학년시절부터 인터넷을 가까이하며 World - Wide - Web이라는 통합된 디지털세계에 거부감 없이 발을 담글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우상화 되거나 동경하는 대상을 통해 '이미지'를 만들어왔다. 노래, 춤과 같은 주술 행위나 벽화로 표현되었으며 나아가 건축물이나 조각, 그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자연, 신 같은 초월적이었던 대상은 인간으로 넘어와 왕, 귀족, 평민으로 변하였다. 그 과정에서 신 같은 왕, 왕 같은 귀족, 귀족 같은 평민 등으로 상향화 하는 욕망의 감상

을 만들었다.

대상과 함께 표현하는 방식 또한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양성을 구축해냈다. 옷, 음식, 건축 등 넓은 영역 중 특히 '초상-'의 영역에서 사진의 발명이 가져다 준 양상이 가장 흥미롭다. 전문성을 요구함으로, 그림과 조각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술이었다. 그럼으로 신 다음으로 왕과 같은 초상을 표현하는데 주로 이용 되었다. 이후 도구와 재료들이 발달하여 접근성이 보다 수월해졌다. 초상은 귀족, 더 나아가 일반 서민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사진이 발명되며 똑같이 초상[2)]을 찍기 시작한다. 사진 또한 초기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당연히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귀족 혹은 부르주아들이 주로 사진에 찍혔다. 발전의 발전을 하여 지금은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찍힌다. 사진이 영상으로의 확장 또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영상은 주로 매체를 통해서 활용되며 그 역할의 기반이 된다. 영상으로 접하던 대상은 자연, 환경 혹은 어떠한 특정 사건이거나 대부분 특정 사람이었고, 간혹 배경 같은 사람'들'이었다. 정치인이나 배우로 국한 되었던 특정 사람은 가수, 연예인 등 다양하게 퍼져 현재는 인플루언서 혹은 스트리머 라고까지 불리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게 되었다.

그 속에서 무수히 다양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무대는 한 없이 넓어지고, 많고 많은 등장인물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다들 닮아있고 비슷해 보이는 인상을 본인은 받는다. 분명한 기억을 하진 못하지만 언젠가부터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옷차림, 말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를 어떻게 나타내고 보여 질것인가의 기준에서 보기 좋음과 듣기 좋음만이 선별되었다. 그렇게 선별된 것들은 정형화 되어 우리를 '어울리기'에 동참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기준들은 엄격함 마저 가지게 된 것 같다. 보여 지

2)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p.157~159. "

는 이미지가 실제 모습과 같거나, 반전매력을 가진 스타가 선호되고 이중적인 스타는 비호감을 갖게 된다. 어울리기로 선택한 Style이나 집단에 따라 응당 갖춰야 될 모습과 언행들이 생기게 된다. 화면과 거리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평범해지는 느낌이다. 공유를 하며 들리는 노래들은 어딘가 모르게 점점 비슷해지고, 공동체를 형성할수록 외로움은 더 커지며 우울증과 자살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우상과 영웅적이었던 모습들은 더 이상 오늘날에는 붕괴 되는 것만 같다. 기존에 자리 잡고 있던 기준과 규범들은 점점 따를 필요성이 없는 가치들이 되었다. 언급한 공유하는 디지털세계를 통해 이전의 것들은 진부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그에 따라 좋은 본보기가 되기도 했었던 우상적이거나 영웅적이었던 가치들은 사라진 듯하다.

프랑스의 68혁명을 계기로 1960년대에 세계적으로 많은 운동이 일어났다. 여파로 미국 내에서 탄생한 문화 중 하나가 '히피'문화이다. 히피문화는 낭만적·이상적 정서로 소비자본주의 문화를 거부하며 반체제를 지향했다. 하지만 장 폴랭의 책 『히피와 반문화』[3]를 통해 보면 내부적으로는 인종·성차별적인 성향을 가진다. 당시 권위주의에 저항하던 68혁명의 진보 개념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해석되며, 그렇기에 다른 운동들과는 달리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더욱이 하향평준화적인 성향은 그 한계를 명확히 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진보성향은 이와는 상반되게 상향화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유하는 속성은 그것을 더욱 원활하게 만들어낸다. 오늘날 우리가 즐겨 입는 청바지는 히피문화의 붐 현상에 의해 탄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시대적 관념을 갖지는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만들어진 이 아닌 만들어내는 이미지를 향유하고자 한다. 상향평준화된 평등을 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

3) 크리시티안 생 장 폴랭, 『히피와 반문화 60년대, 잃어버린 유토피아의 추억』, 성기완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5

만들어내는 이미지들을 향유하며 욕망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미지들은 생산되고 소비되며 충족되지 못했던 욕망을 계속해서 채워나간다. 부족한 욕망을 또 발견하고 확산해 나간다. 이에 따라 유행이 생기고 유행은 정보화되어 거대해진 파급력으로 개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개인은 이런 이미지와 스스로를 동질화 시키며 자신을 이상적 상태로의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듯하다. 하지만 개인성을 상실한다. Style과 맥락들은 다채롭다, 하지만 범람한다. 너무 많은 것들이 쏟아지며 무엇이 본인의 입맛에 맞는지 고르기가 힘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선택을 강요한다. 그리고 끊임없이 규정 짓기 시작한다. 한 예로 채식주의가 주목받으며 개인을 채식주의자인지 육식주의자인지를 규정하게 만들고 또 그 안에서 여러 항목으로 나누고 또 가른다. 채식은 비건, 락토, 오보와 같은 맥락으로 나뉘듯, 규정되는 모든 것들은 세분화되며 엄격한 논리를 만들게 된다. 분류된 집단에 따라 개인의 일관된 언행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오히려 우리를 침묵하도록 만들게 되기도 한다. 개인은 어느 집단에 속할지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 선택 그 자체 또한 모호해 보인다. 선택된 취향이라는 것이 그 자체로서 참 인지, 무의식적으로 축적된 어떠한 이미지인지. 알 수가 없게 되었다. 디지털세계로 개인의 욕망과 공유하는 속성이 만나며, 상향평준화된 다양성은 세상을 단순히 더 거대해진 우물로 바라보게 만든다. 그 안에서 개인은 무개성적인 인상을 준다.

흔히 일컫는 욕망의 종류 중에 아마 도태는 없을 것이다. '나는 도태되고 싶어!'라는 말이 쉬이 쓰일까. 사람의 기본적인 보수·진보 성향과 더불어 동시대성은 일종의 소속감으로 개인들에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시대의 일원으로 저마다의 특별함을 내세우며 각자의 존재위치를 명확히 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라는 흐르는 강물에 발을 그저 담그고 있을 뿐이다. 이상·우상적 이미지들은 끊임없이 범람하는 거대한 강줄기 속에서 공유되며 개인은 그저 그 물에 젖고 있게 된다. 개인의 존재감은 분명한 듯 보이지만 씻기고 간 듯 희미한 인상을 준다. 익명적이

고 지극히 평범하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하며 자신 스스로를 타인의 요구 앞에 노출하는, 타자공동체에 그저 묶인다. 우리는 그 안에서 각자를 재현하기만 할 따름인, 탈개인화가 되는 듯하다.

본 론

"우리는 스스로를 드러냄으로써, 보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만져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빛에 노출함으로써, 우리보다 앞서가고 우리가 발을 디딘 땅으로 스며드는 기괴한 그림자들을 발생시킨다."[4]

본인은 수평적세계의 선상에서 본인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곤 한다. 유령이 아닌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와 같은 고민. 그저 숨 쉬고 있어서 사는, 목적성 없는 수동적인 자세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능동적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이 널려 있는 작금의 시대에 살면서 그 고민은 필연적으로 다가온다.

… 실존주의[5]적인 입장이 나의 고민을 해소해주기도 하였다. 마치 어떤 정상 위의 깃발을 뽑기 위해 목표만을 향하는 것이 아닌, 내딛는 발 한걸음 걸음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 듯했다. 그제야 비로소 주변 풍경과 옆의 동행자와 같은 많은 의미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만 같은, 아주 기분 좋은 상상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았다. 모두 같아 보이고, 방향성을 잃게 만드는 길과 너무 많은 발자취들은 의구심을 만들며, 둘러쌓은 끝없는 숲은 발을 무겁게 만들었다. 이 처럼 해답을 비추면 비출수록 그 답은 더 어두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다. 우리는 이 세상이란 무대 위에 내던져져있다. 한명의 등장인물로서 당당히 암전 된 무대 위에 발을 딛고 있지만, 조명을 보다 더 밝고 넓게 비추고 있음에도 아이러니하게 나의 그림자는 계속해서 희미해져만 간다. 유령이 되어간다. 유령은 그림자가 없다. 그럴수록 더욱 발버둥을 치게 된다. 현재이건 미래에건 남고자 하거나 남아 있고 싶어 하기 위한 몸부림을 친

---

4) 알폰소 링기스,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 김성균 옮김, 바다출판사, 2013, p.77

5)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명제로 주관적인 경험, 선택의 자유, 책임 등을 강조 했던 20세기의 실존 철학

다.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는다'라는 어휘로 사람은 이 세상에 있고자 한다. 존재하고자 한다. - 작업노트 중[6]

자연스레 이 바람은 '어떻게(how)'라는 방법론적 질문을 낳았으며 가치관과 기준, 개인에 따라 '어떻게'의 영역은 끊임없이 변화해왔다. 본인 또한 현 시대에 조각을 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남아있거나 남겨질까에 관한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에 따라 사람을 인식하는 것에 대한 변화도 함께 뒤따라왔다.

1. 포토제닉

현대 사람들의 선망하는 대상이나 그 이미지가 욕망을 부추겨서 소설 피터팬 속의 '네버랜드'는 더 이상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화되어 간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환경을 통해 완전해진다. 오늘날 흔히 쓰이는 'nerd'라는 단어가 있다. 속된 말로 '찌질이'로 혹은 '오덕후'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재발견 되고 보여 지며 세상에 알려진다. 따라오는 단어 뒤에 '-y'가 붙으며 본래는 '찌질-한'을 지시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뜻을 내포하게 된다.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사소하더라도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에 몰입하는 미(美)를 추구하게 된다. 이는 nerd미라고 불리게 되며, 자신의 이상을 좇고, 우상화시킨다.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대표적인 것으로 얼굴을 언급할 수 있겠다. 얼굴을 통해 자아를 표현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기도 한다. 각자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을 우상화하는 장치로 사용된다. 그래서 얼굴은 우상화된 이미지로 스스로를 타자 앞에 노출하게 된다. 사진을

6) 2014년 6월 2일에 '요즘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본인이 적은 노트의 일부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고민은 2018년 3월 3일에 우리는 일생을 마치며 무엇을 남기는가에 관련된 본인의 생각을 '기억의 습작'이라는 제목으로 노트를 하였다.

잘 받는 매력적인 상태, 이상적인 상태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게 된다. 스스로 고유한 빛을 내고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는다.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과시하며 그 이미지가 본인의 실체로 대체하게 된다. 동질화하는 착각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 대한 미(美)의 가치로서 자리매김한다. 이러한 속성은 새롭고 발전적이며, 활기차고, 생산적인 것으로 보여 진다. 보여 지는 것을 방해하거나 제약을 줄만한 모나고 거친 속성들은 제거된다. '매끄러운 미'[7]를 발산한다. 얼굴을, 더 나아가 자신을 매끄러운 물신으로 형성한다.

타자와 자아는 다르다는 사실은 스스로로 하여금 주체만을 더 주목하게 만들게 되기도 한다. 모든 것은 한 개인주체의 선택과 집중에 맡겨지게 된다. 타인과 주체는 각자의 위치에서 이해만 하면 된다. 그 사이에서 차이를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기에 '좋아요'로 공감과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매력을 만든다. 이 매력은 우상화를 향한 개인의 욕망을 건드리고, 동시에 감상을 공유하는 욕구를 채워준다. 미적으로, 육체적으로 매력 있는 상태를 계속해서 드러낸다. 만족할만한 보기 좋은 상태를 쫓게 된다. 보여 지기를 희망한 대상과 환경에 따라 치명적이거나 아니어도 상관없다. 일련의 속성은 우리의 감상을 매우 쉽도록 만든다. 보다 쉬워진 기술의 접근성과 함께 보다 직접적이고 스펙터클하다.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으로 현란한 빛을 발광한다. 모나지 않고 거침이 없다. 우리는 각자의 존재감을 계속해서 뿜어내고, 드러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 사진을 잘 받는 상태가 된다.

분명 이와 같은 포토제닉한 속성은 보여 지는 사람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었다. 주변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수 나타나고,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매력을 표출하는 다양한 방법도 알려지게 되었고, 본

---

7)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p.29, "아름다움의 미학은 근대의 독특한 현상이다. 근대 미학에서야 비로소 미와 숭고가 분리된다. 미는 그 순수한 긍정성 속에 갇힌다. 강력해지는 근대의 자아는 미를 만족의 대상으로 긍정화한다."

인에게 가장 어울릴만한 모습이나 매력을 찾아 가꿀 수 있게 되었다. 우상이나 이상형을 따라 해보기도, 직접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다른 이면의 양상으로 사람들이 보여 지기도 한다. 사람들은 어딘가 모르게 점점 비슷해져만 가는 것 같다. 끝없는 유행과 만족은 존재의 가치 자체를 이상화하기보다 허상으로 만들어내게 되는 듯하다. 자아의 물신은 어떠한 의문을 제기하거나 보답을 요구하지 않는 허깨비 속에 존재하게 된다. 이상적인 현존재가 되기보단 우상화에 그치고 만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화라는 개념은 허깨비와 비슷한 속성으로 우리의 자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알 수 없는 허무함을 낳는다. 조각을 하면서도 본인은 이와 비슷한 감상을 가졌었다. 사람답게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인체형상을 주된 주제로 작업을 해왔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항상 뒤따랐다. 그로 인해 진정성이 있고, 가공되지 않은 현실성을 찾고 싶게 되었다.

본인이 찾고 싶은 그러한 진정성은 애드워드호퍼의 그림과 그의 삶을 통해 보여 졌었다. 애드워드 호퍼의 작품들을 보면 뉴욕의 도시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림에서 표현된 인물들 또한 그 배경과 함께 도시민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잘 갖춰진 옷차림새 와 보여 지는 표면적 모습은 잘 정돈 돼있고, 꾸밈도 있으며, 자칫 화려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도시적인 분위기는 오히려 호퍼의 그림이 표출하는 공허함과 고독감을 부각시키는 듯하다. 평범한 일상속의 고요한 적막감을 표출해낸다.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풍요로운 미국, 그리고 당시 시대상의 사회적인 익명성의 특징이 직접적인 그의 감상을 통해 잘 나타나있다. 개인적이고 쓸쓸한 정서가 전달된다. 그리고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비교적 다사다난하지 않은 평범해 보이는 호퍼의 일생은 작품을 더 고요하게 만드는 것 같다. 잠깐의 파리생활을 빼고 호퍼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생을 마감하였다. 지극히 순탄한 삶처럼 보이는 평범함 속에서 그만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2. 작업에 관하여

위에서 포토제닉에 관하여 논의한 것은 본인의 작업 성향에도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던 특성이다. 예를 들어 삼국지를 읽으며 상상했던 관우의 모습이 기대이상의 모습으로 발현되었을 때 그 모습은 더 강렬하였다. 잘 가공된 이미지로 표상화되어 불러일으키는 쾌감은 그 어떤 말이나 글로는 대신 할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보기 좋음'에 매료 되고 무의식 속에 그 좋음을 축적시킨 듯하다. 이렇듯 본인은 좋아 보이고, 우상·호감적인 이미지를 갈망하였다. 이 바람은 인물형상을 이상적인 이미지로 표피화 시키는 시도를 하게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지의 요소 자체를 보기도 했지만 그것에 매료된 본인과 사람들도 보았다.

사진의 작품들뿐만 아니라 이전 작업들 대부분에서 건강하고, 흔히 예쁘고 멋있는 모습의 인체를 표현하였다. 군더더기 없이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을 수 있는 상태에 집중했다. 미적·육체적으로 매력적인 상태는 저항적인 태도를 갖지 않는 것 같다. 길을 지나다 계속 보게 되는, 시선이 머무는 특정 사람, 혹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사람. 책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역사 외』에서 저자 발터벤야민이 클로즈업 촬영기법을 언급하듯, 주변의 세상은 사라지고 보여 지는 매력에 빠져들었다. 혹여나 눈에 보이는 요소를 놓칠까, 하나도 빠짐없이 붙잡으려는 노력은 본인의 작업과정 전반에 고스란히 베어났다.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요구하였지만 마땅히 해야 하는 값진 행위이었다. 매력은 아름다움이란 이름으로 무장된 채 노출하고, 그렇게 보이게끔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결과물 끝에는 언제나 알 수 없는 허무함만이 밀려왔다. 오랜 수정작업을 거쳐 마감된 작업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전시장으로 옮겨진 작품에 조명을 비추었을 때 그랬다. 철판을 조각조각 단조하며 인체를 형성하는 단계에서는 보이지 않았으나, 상상했던 완성의 윤곽이 나왔을 때 물밀듯 쏟아졌다. 허울 좋은 속 빈 강정의 보기 좋음만이 남고 자기위로의 행위로 밖에 보이질 않았다. 더욱이 사람 같아 보이질 않았다. 그렇게 남은 조각들을 채우지 않고 미완성인 상태의 인체형상을 제시하게 되었다. 본인을 매료시켰던, 그렇게 찾고자 했던 매력은 분명하지만 허깨비 같아 실재하는지는 알 수가 없게 되었다.

찰나가 영원을 붙잡듯 인식의 과정에서 대상의 표면이 실체를 뒤덮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사과를 떠올릴 때 개인마다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어떠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된다. 빨갛게 잘 익은 상태로 이상적인 사과의 모습을 그려낸다. 개인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타인을 인식할 때 그 사람의 의지로 생성해낸 생각에 따라 구성되어진 이미지를 형성시킨다. 그 이미지로 우리는 타자를 상상하고 인식하게 된다. 그것은 시간과 관계없이 한 장의 스냅 샷으로 찍히듯, 표면에 인쇄되어 대상을 뒤덮는다. 그렇게 시선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된다. 하지만 그렇게 형성된 표면의 인상은 대상을 온전히 대변할 수는 없다. 우리는 타자의 내부로까지 직접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타자의 모습은 타인을 이해하도록 요구하는 자아의 사고력과 타자가 생성해낸 인식이 더해져 도출해낸 가상과 같이 다가온다. 자아를 자각 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이다. 타자를 대면하며 표피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이해하도록 강요한다. 동시에 그것이 온전한 본래의 자아임을 피력한다. 뒤덮여 있는 모습은 허깨비 물신[8]처럼 다가온다.

타자를 온전히 간파할 수 없으며, 타자의 의지로 구성된 생각이미지라는 사실을 직시 하고 있음에도 분명 타자는 타자로서 본인의 시선 앞에

8) 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여 숭배하는 동식물이나 물건

서있다. 존재하고 있다. 그렇게 대상을 '적어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인식한다. 마치 시력을 잃은 장님이 자신 혹은 타인의 얼굴을 다시 떠올리는 일과도 같을 것 같다. 손을 내밀어 더듬으면 희미하더라도 그 윤곽이 느껴질 것만 같다. 혹은 수영장 반대편으로 헤엄치며, 반대 벽을 짚는 상상이 손끝의 모든 감각을 물살보다도 계속해서 벽의 감촉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재확인·재인식은 어려우나 분명히 타자를 대면한다. '적어도, 내 선에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음'과 그렇게 '추측하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미적·육체적인 모습을 발산하고 그 모습을 서로 바라보며, 그것이 그 대상임을 믿는 듯하다.

… 진실과 민낯과 오해. 모자이크가 아닌 투명한 사실. 사실은 투명해서 오해가 생긴다. 진실은 다 모자이크다. 모자이크여야 더 진실 같아 보인다. 진실은 모자이크. 그래서 진실은 불편하다. 아니 불편해 보인다.

나는 매우 슬프게도 매우 기쁘게도 평범하다. 나는 그냥 평범하다. 나 또한 평범한 사람이고, 개인이고, 주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친구이고… 현대인이다. '요즘애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old school'도 아닌. 나는 기쁘지도 우울하지도 애매하다. 하지만 평범하다. '나는 특별하다'는 '나는 너보다 낫다'이다. '나는 다르다'는 '나는 내 멋대로'이다. '나는 나다'는 '나는 남들과 다르지 않다'이다. '평범하다'는 평등 그 이상이다. 누구나 어느 순간에 평범해진다. '지구를 구한다'는 '지구 파괴다'. '나'는 '너'를 만들고, '너'는 '나'를 만든다. '너'(타자)로 인해 내가 존재한다. … - 작업노트 중[9]

2. 1) 제시된 얼굴

한 인물을 제작한다고 하였을 때 수많은 요소들을 고려하게 된다. 만약 살아있는 대상이 나이가 많은 모습을 하고 있다면 현재의 모습을 따를지, 혹은 인상적으로 기억되는 어느 순간의 모습을 따를지. 그 대상의 업적이 있다면 그 업적을 강조할 것인지, 인간적인 모습은 배제할 것인지

9) 2019년 11월 경 본인이 적은 노트 중 일부를 가져왔다.

와 같은 수많은 질문들을 만들게 된다. 이미 세상을 떠난 대상의 경우에는 더욱이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듯 한 사람을 표현하는 인물상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다울 수 있는 감상을 포착해내는 것에 많은 고민과 결정들이 뒤따른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물상으로 '모뉴먼트'가 있다. 본인의 시각적 경험에서 바라본 서울의 대표적인 동상을 한번 언급해보고 싶다. 광화문에 세워진 이순신동상은 의미적·조형적으로 너무나도 훌륭하지만 정말 저 상이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대변하는지는 잘 가늠이 안 된다. 100원의 동전에 새겨진 인물초상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고 서로 너무 다르기도 하다. 광화문의 동상은 하나의 늠름한 장군동상으로 보여 진다. 동전 속에는 옛 조선의 어떤, 누군가의 초상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되었거나, 만원지폐의 이미지 때문인지 세종대왕상은 그 보다는 더 인물의 구체성을 가지는 듯해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정말 보이는 저 모습이 세종이라는 사람의 모습일까 하는 궁금증을 유발한다. 물론 인간적이고 사람냄새가 풍기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닌 모뉴먼트이기는 하다. 그러나 본인은 인물상들을 통해 계속해서 실제의 사람다운 모습을 궁금하게 여기게 되는 것 같다. 이러한 본인의 감상은 현 시대상과 그 속에 허깨비처럼 느껴지는 사람상과 맞물리며 본인에게 조각적인 하나의 바램을 만들어내게 되었다.

"실재(현실)보다 더 추상적인 것은 없다. 추상적인 어떠한 사람은 보다 더 명시적이고, 가시적 세계 앞에 놓인 인물 대상이 더 추상적이다." - 조르조 모란디[10]

본인은 허깨비처럼 '보여 주고', '드러내고 있는' 이 아닌 보다 사람다운 존재감을 찾고자한다. 그리고 인물형상을 통해서 그 존재감을 형상화하고자 한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타자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인식되고, 분명하지만 모호하게 보게 되는 이중적인 사고를 하게 된다. 본인의 내면 안에서 이 사고는 계속 충돌하며 작품을 보다 사람답게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일말의 추리로 본인은 추상적인

10) 조르조 모란디, 1890년 7월 20일~1964년 6월 18일, 이탈리아 화가

인물보다는 실재의 인물, '지인'을 모델로 조각을 하게 되었다. 본인의 시선 앞에 제시 된 얼굴을 보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읽을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그럼에도 대상이 된 지인들은 본인의 혼란을 가중시킨다. 지인은 본인과 대면하는 관계 속에서 파생된 채로 눈앞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출된 표면이 허상일지언정 그 육체는 허깨비물신과는 엄연히 다른 주물[11]로 형성되어있어 보인다. 추상적인 인물보다는 완전히 미지의 영역은 아니다. 온전히 간파할 수 없음에도 '적어도 알고 있다고' 믿는 타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개'와 지인을 알 수 없는 존재로 같이 보기가 힘들다. 단어 그대로의 평범한 인물이지만 본인에게 있어서는 적어도 아니다. 본인에겐 조금이라도 평범함 이상으로 존재한다. '누군가'이다. 어떠한- 인간상으로 단순히 표상되지 않으며 복합적으로 얼기설기 엉켜있다. 개인의 우상화된 모습과 자연스러운 평범함이, 그리고 대면하는 표면과 온전히 알 수 없는 내면이 같이 공회전한다. 타인이면서 동시에 본인에겐 자연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기에 지인들을 빗대어 인물형상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현 시대상에서 본인이 집중하고 포착하고자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며 그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존재감을 간직하고 있는 듯하다. 이를 통해 본인은 개인을 이상적 현실 존재로 바라보고자 희망한다.

… 어쩌면 인식의 과정에서 고깃덩어리와 사람을 구별하는 데에 기억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것 같다. 기억 속에 존재함으로써 단순히 보이는 대상이 아닌 진짜 보는 대상으로 바뀌게 된다. 벗고 있는 저 모델은 존재를 모르게 하는 두터운 살가죽의 옷을 입고 있어 보이고, 반면에 내 앞에 있는, 적어도 내 선에서 아는 사람은 옷을 잘 갖추어 입고 있음에도 보다 더 벗겨져 있다. - 작업노트 중[12]

---

11) 어떤 물건이 부속되어 있어 직접적인 효용을 가지는 주된 물건
12) 2019년 10월 19일, 평소 누드모델을 보며 가졌던 본인의 감상을 적은 '아무개'라는 노트 중 일부를 가져왔다.

2. 2) 사진으로 보는 대상

작품의 소조작업 과정에서 모델을 직접 대면하기도 하지만 주로 사진을 통해 모델을 바라본다. 대상은 사진에 찍힘을 인지하며 카메라 앞에 서 있게 된다. 스스로를 드러내고 노출시키게 된다. 사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포착된 머리, 옷, 표정 등의 표면은 드러나 있는 모습이다(드러냄을 보는 것이 아닌 드러나 있는 상태). 사진을 통해 보여 지는 감상적인 표면은 본인의 사고력과 대상이 요구하는 생각의 충돌을 상쇄시켜 주는 듯하다. 받아들여지듯이 대상을 대면하게 된다. 본인의 시선은 덜 수동적이 된다. 물론 그와 동시에 그렇다고 온전히 능동적일 수 없음 또한 인지하고 있다. 모습은 맞서거나 저항적이지 않는 태도로 편안히 보여 진다. 대상이라는 타자와 그 주체는 경계를 드나들며 주체의 타자화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상태는 사진 속에 담기며, 대상을 읽을 수 있는 노력이 가능해지는 듯하다.

물론 모든 인물사진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감상이 가능하도록 임의의 설정이 모델들에게 주어진다. 우선 모델들의 옷, 머리, 표정 등과 같은 모든 것은 모델에게 맡겨진다. 사진을 찍는다는 전제만이 주어지고 본인들을 카메라 앞에 노출시키게 한다. 이러한 자율성 속에서 포즈에 대한 작은 요구사항만이 주어진다. 우선적으로 자유포즈의 촬영을 하고, 찍힘 당한 사진을 각자에게 보여주게 된다. 이는 각자가 사진을 통해 어떻게 보여 지는지를 인지하게 하며 다음 사진을 위한 일종의 연습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본 사진을 찍기에 앞서 모델들에게 본인이 작성한 간략한 지문을 준다. 그 지문은 다음과 같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다.’라는 사실에 관하여 사회적 요소 중 ‘집단’을 빼놓고 이야기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사회에는 매우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갖는 집단이 존재한다. 집단에는 그 목적, 배경, 사회적 입지, 역할, 행위 등 여러 요소들이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를 이야기 할 때 그 집단을 이루는 ‘구성원’을

빼놓고 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많든 적든 각 개개인의 구성원이 모여야 집단이 형성되고 그 목적이나 다른 가치들을 이야기 할 수 있지 않은가.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식의 물음 속에서 본인은 어쩌면 구성원이 먼저이지 않을까 싶다.

구성원으로써 개인은, 즉 당신은 다양한 집단을 이루고 속해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족을 넘어 사회, 국가, 세상이라는 거대한 집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살아가면서 만난 여러 집단들 속에서 본인을 본인으로 구별 짓게 되는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차이점, 특이점, 장점, 특별함, 혹은 바라는 점, 감성적인 부분들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요소를 고려해 볼 때 당신은 어떠한 역할 혹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는가?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길 원하는가?[13)]

지문을 읽고 나서 필요한 만큼의 고민의 시간 후, 각자의 생각에 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준비가 되면 다시 재촬영에 들어간다. 역시 포즈는 제약 없이 각자에게 맡겨진다. 재촬영을 안 해도 되고 원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모델을 촬영하고 그 사진 이미지를 토대로 소조작업에 들어간다. 사진을 통해 대상 스스로들은 각자의 개별성을 구별하고 노출시킨다. 사진을 찍힌다는 사실은 모델에게 이미 집을 나서기 전부터 많은 영향력을 선사했을 것이다. 대상의 머리와 옷, 표정을 넘어 모든 보여지는 모습은 카메라의 셔터가 닫히는 순간까지 표출되었을 것으로 본다. 이 모든 정보는 소조 작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게 된다. 작업 중간 중간에 끊임없이 되새김질 하게 된다.

13) 2019년 1월 29일에 작업에 착수하기 시작하며 본인이 만든 질문지

3. 인물형상

작품 <익명.01> 모델은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들어왔을 때, 안락함을 느꼈다고 한다. 안락한 기분이 들었던 이유로 한국에 몸 담았던 친구들이라는 집단을 꼽으며 '맛집'과 같이 변함없는 안식처의 감상을 이야기 하였다. 본인 또한 집이나 안식처 같은 사람으로 남고 보이고 싶다고 하였다. 평소 매우 활기차고 강인하게 보여 졌던 대상이었기에 이와 같은 이야기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었다. 의외로 여린 모습으로 느껴졌으며 오랜 유학생활이란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유추해볼 수도 있었다. 기저에 깔려 있는 보이지 않는 이면 때문에 본인에게는 반대적인 모습으로 내비쳐 졌는지 싶었다. 혹은 말 그대로 대면하는 관계 자체가 안락함을 주었기 때문에 편한 모습으로 보여 질수도 있었을 것이다.

<익명.02>의 모델은 작품들의 모델들 중 가장 오래된 인연으로 재밌고 웃겨서 항상 웃음을 선사해주는 사람이라는 감상을 가지고 있다. 언젠가는 개그맨이 되거나 연예인이 될 것을 권유도 많이 했었다. 하지만 답변을 보고 한편으로 미안함과 따듯한 감상을 가지게 되었다. - "주관적인 견해로 혹은 수많은 시간동안 듣고 느껴왔던 수많은 의견들을 토대로 나의 역할은 함께 있을 때 그 시간에 조금 더 많이 웃을 수 있게 기대하는 조금 더 행복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게 기대하는 구성원 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한 기대를 받고 있다거나 그러한 생각을 했을 때 부담감을 느낀 적도 있지만 수많은 시간들이 지난 지금은 그러한 기대가 아주 고맙고 또 고마운 생각이 든다. 지금은 오히려 나로 함께 있는 시간에 내가 조금 더 밝게 빛나는 시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에 행복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모두의 인생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 ○○○. 이해를 못했었지만 개그맨이 아닌 사회복지사가 된 연유가 있나보다.

- "개인적으로 나는 대학교 친구들이건 동호회 사람들이건 회사 사람들이건, 심지어 애인이건 내심 만났을 때 무얼 할까 고민한다. … 딱히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지금 지문을 읽으면서도 그런 모습은 딱히 없는 것 같다. 그저 나 있는 그대로를 봐주었으면 좋겠다." - 고 답한 <익명.03>의 모델은 본인에게 언제나 당당한 심리적 인상으로 그려졌었다. 겉으로 보여 지고 표출되는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표면적 감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말끔하고 보기 좋은 인상을 주었다. '나이스하다'는 표현이 어울린다. 그러나 "내심 만났을 때 무얼 할까 고민한다."는 말은 한편으로 소담한 인상을 만들기도 하며 어딘가 모르게 본인의 마음표상에 허전함을 불러일으켰다.

작품 <익명.04>의 모델은 본인에게 가벼운 인상으로 느껴졌었다. 언제나 해맑게 웃는 얼굴의 인상과 넘치는 장난 끼가 그 이유였다. - "나를 만남으로서 기분이 좋아지고 사회나 개인적으로 받던 스트레스가 풀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 즐거움이라는 마음의 상을 가지고 있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상은 누구에게나 전달이 잘 될 것 같다. 그 근거는 당사자가 '근본적인 존중'에 대한 언급을 하며 존중을 중요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측된다. 하지만 답문을 보고 가벼움 이면의 무색무취의 딱딱한 감상을 받기도 하였다. 모나지 않고 언제나 바른, '좋아 보이는' 것에 집중하고 삶의 자세를 취하는 모습들을 떠올리기도 한다.

<익명.05>의 모델도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오며 꾀 오랜 시간동안 따듯한 감성으로 자리잡혀있다. 때로는 미련하기까지 할 정도로 선한 이미지로 표상되어있다. 이 성향은 자연스럽게 그의 직업과도 연결이 되는 듯하다. 하지만 - "그냥 ○○(모델 이름)은 ○○이였으면 한다." -는 답문을 들었을 때 자기애의 감상을 느끼게 되었다. 모델에게서 언제나 느껴졌던 '선

함' 자체와 연결되는 자기애. 선함과 그에 따른 베푸는 행위는 충분한 자기애의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한 듯 보인다. 보여 지는 자기애가 심한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스스로를 부족하게 여기면서 갑갑하게 만들고 집착을 가지고 있어 보인다. 충분한 자기애에서 비롯된 선함이 진정성으로 다가온다. 안정감 있는 자기애가 대상으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잘 느껴진다.

소조작업은 대상을 통해서 읽히는 표상들과 수많은 정보들, 그리고 새로이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적하는 행위가 된다. 사진을 통해 대상을 형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모든 정보와 대상이 향유하는 이미지를 본인의 손으로,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게 된다. 그 정보와 이미지는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타자화 되어 본인의 시선 앞에 이미 나타나있는 자연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대상이 표출하는 우상화된 모습이 아닌, 본인에겐 이상화된 자연스러운 상태의 것으로 바뀌어 보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훼손시킬 수가 없다. 형상으로 보여 지는 메시지를 최선을 다해서 읽어 나간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상태를 잃지 않기를 갈망한다. 눈으로 탐색하고 감지하는 모든 정보들을 있는 그대로 표출한다. 타자의 형상 표면과 본인의 손끝이 조우하며 대상과 직접 접촉하는 감상을 유발하는 듯하다. 손을 더듬으며 제시되는 형상은 대상이 호소하고 요구하는 표면들을 아낌없이 수용한다. 사진이 아닌 인물의 형상이 본인의 시선에 더 들어오게 되며 이상적인 상태로 남기고자 하였다.

재료를 대하면서 위와 같은 수용적인 자세는 계속 유지된다. 소조작업에서부터 작품의 결과물까지 가는 과정은 실천적인 자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제작 중에 흙이 건조되며 갈라지거나 무너지는 부위를 인위적으로 가리거나 없애지는 않는다. 흙으로 형상화된 한 덩어리가 발산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본인의 손으로 제작은 하지만 형상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과 조우하며 형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재료

적인 특성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일종의 부속물이다. 물성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이기에 그대로 내버려둔다. 소조작업의 과정이 끝난 후에 형상을 시멘트로 전환하면서 이와 같은 성향은 더 강화된다.

3. 1) 탈색

흙으로 형상화된 인물은 캐스팅과정을 통해 시멘트물질로 전환시킨다. 시멘트라는 물성 자체가 이미 함유하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다. 본인은 이전에 인테리어 일을 하며 시멘트를 마주했던 적이 종종 있었다. 현대건축의 재료로 널리 쓰이며 흔히 노출콘크리트로 보여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보통 타 재료들과 같이 쓰였는데 다른 재료들을 돋보이게 하며 뒤로 숨는 듯한, 바탕화면적인 감상을 본인에게 주었다. 목재, 철재, 유리, 금속, 그리고 그나마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자연석을 옆에 가져다 놓아도 오히려 타 재료들을 부각시켜 주었다. 매우 중성적이고 개성적이지 않아 보였다. 본인은 시멘트의 바탕·배경적이고 무개성적인 느낌, 그리고 발색하는 회색의 감상적인 속성에 주목하였다. 길을 걷는 어디든, 어느 공간 속에 들어가도 사방은 시멘트천지이다. 그러나 본인으로 하여금 시멘트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선사하지는 않는다. 심지어 회색은 엄격한 흑과 백의 논리에서 벗어나, 그 사이 중간 즈음에 위치하며 애매모호한 감상을 강화해 주는 듯하다. ‘드러내’지 않는, ‘보여주지’ 않는, 분명히 현재하지만 부재해 보이는, 하나의 희미한 덩어리로

서의 감상을 갖는다.

만듦새 있던 소조상이 시멘트로 전환된 상태는 본인에게 한편으로는 허무함을 자아내기도 한다. 분명했던 덩어리감과 표현, 그리고 인물상이 갖고 있던 비주얼의 존재감은 시멘트의 물성으로 바뀌며 탈색되고 밋밋한 덩어리로 나타나게 된다. 이는 이전의 소조작업의 과정에서 탐색하고 감지해낸 정보들을 보기 흐릿한, 인지하기 힘든 상태로 되돌린다. 대상의 모습을 찾아내려고 며칠을 애쓰며 작업한 노력의 흔적들을 지워서 없앤 듯 한 인상을 주기도 한다. 시멘트로 말끔하게 인체형상을 캐스팅한다는 것 자체는 애초에 불가능할 정도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시멘트의 작업과정은 상당히 민감하여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다. 제약적인 상황을 지키지 않으면 어김없이 금이 생기고 갈라지며, 잘못된 양생과정은 시멘트를 가루처럼 바스라지게 만들기도 한다. 이는 한편으로 4차 산업혁명과 미래가 도래하며 인공지능과 기계들의 등장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마치 기존의 노동으로 인간은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 노동의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인간들은 더 가난해지고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는 생각마저 들게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인은 온전하게 그 형상을 캐스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지만 이 허무한 감상은 알 수 없는 후련함을 본인에게 선사해주었다. 타자를 온전히 간파할 수 없는 한계를 토로해주며, 타자를 대면하며 형성된 관계의 약속들을 깨트려준다. 본인의 손아귀 즉, 지배에서 벗어나 다른 생명력을 갖는 것 같다. 의도와 상관없이 갈라지고 깨지며 그 물성이기 때문에, 그 형태이기 때문에를 호소하는 듯하다. 물성을 지배하기보다 그 속성을 받아들이게 만든다. 그래서 예전의 경험으로 만났던 나무라는 물성이 본인에게 다루기 어렵고 힘들게 다가왔었나 싶다. 완벽하게 제어되고 본인의 입맛에 딱 맞는 형태로 제조되던 철의 경험과, 수정작업으로 원래부터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척 하는 매끈한 표면은 무언가 인위적으로 다가온다. 시멘트로 전환된 형상은 더 자연스럽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대상의 타자화가 표출되는 듯하다. 소멸되어 버리듯이 그 주체는 은은하게 존재하는

것 같다. 시선 앞에 '보여 주'지는 않지만 '보이기'는 하며, '드러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며, 구별되길 원하나 모호해진다. 우상화하지만 비슷해지고 평범해진 우리 개인들은 어딘가 모르게 시멘트와 닮아 있다.

"우리는 타자들의 얼굴들에서 타자들의 가치들을 발견한다. … 외모에서 우리는 타자들의 관능성이 우상화하거나 물신화하는 것을 목격한다. 문명 공통약속 암호들을 체질화한 어떤 타자가 얼굴을 돌려 우리를 대면할 때 그 타자의 얼굴은 '내가 여기 있소!'라고 말한다. …허깨비를 만들고 '내가 여기 있소!'라고 말하는 '나'라는 '우상'은 이해행위를 통해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허깨비 현상을 만드는 것에 대한 인식과정은 한 범주의 또 다른 사례를 재인식하는 과정이 아니다."[14]

14) 알폰소 링기스,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 김성균 옮김, 바다출판사, 2013, p.110~111

결론

너무 화려해진 세상은 오히려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할지 혼란을 만든다. 이 거대한 사회 속에서 우리 개인이 갖고 있는 힘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많은 것은 소비가 가능한 한낱 상품으로 바뀌고, 유행을 향한 강박이 끊임없는 공허함만을 낳는 것 같다. 그렇게 이 '어울리기'라는 프레임 안에 개인은 그저 적셔있게 된다. 자아를 잃어버린 채 느껴지는 무력감은 일시적인 쾌감만을 쫓게 된다. 시대적인 특성과 욕망은 개인의 모습들을 누락시키고, 보잘 것 없게 만들기도 한다. 주변에서 여럿 볼 수 있는 원인 모를 무기력감과 우울증이 창궐하는 요즘이다. 본인도 같은 시대에 살면서 똑같이 느껴본 적이 있는 감정임에 분명히 조명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무미건조하고 예측 가능해져버린 현대인의 삶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한 개인이 현실을 바꿀 수 없기에 명시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아직 너무나도 힘들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그 의미와 해답을 모색하고자한다.

본인은 체제의 거대함에서 느껴지는 초라함과 무력감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이며 지금의 현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유일한 창구이다. 지극히 평범한, 심지어는 외로운 모습까지도 지당 개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 중 하나이다. 이렇듯 본인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이상적인 존재감은 자연스럽게, 은은하게 비춰지는 사람의 모습이다. 억지스럽지 않은 가장 사람다운 상태이다. 마치 백화점의 얼굴 없는 마네킹이 서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어떠한 이해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보는 시선을 맞서거나 저항하지 않는다. 고요하게 서있다.

미래에 대한 개인의 불안감은 언제나 남아있다. 그것은 흑백논리와 같이 명시적인 해결책을 낳아줄 수는 없는 듯하다. 회색의 탈색되어 있는 시각적인 감상은 본인에게 불안감과 해방감이 미묘하게 교차하며 하나의

존재감으로서 보여 진다. 그것은 반딧불이와 같다. 어둠속에서의 반딧불이는 횃불처럼 스스로를 마구 비추고 밝히지 않는다. 보여주진 않으나 '보이기는 한다.' 드러내진 않으나 '드러나기는 한다.' 구별이 되긴 하나 '모호하다.' 은은하고 희미하게 빛난다. 반딧불이의 정체성은 본인이 가장 주목하고 이상적으로 남기고자하는 개인의 존재감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참 고 문 헌(16pt)

발터 벤야민, 『기술복제시대의 예술작품 사진의 작은 역사 외』, 최성만 옮김, 도서출판 길, 2007

크리스티안 생 장 폴랭, 『히피와 반문화』, 성기완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15

알폰소 링기스, 『아무것도 공유하지 못한 자들의 공동체』, 김성균 옮김, 바다출판사, 2013

한병철, 『아름다움의 구원』, 이재영 옮김, 문학과지성사, 2016

Abstract

This research begins with looking closely into my ambivalent attitude when creating human scupltures. This twofold attitude reveals itself not only in my life but also in my work, and I have realized that this comes from digitalized shared-society. Although we live in an era of infinite possibilities of expressing ourselves, I tried to trace down the vacuousness which we come across at the end. Each individual is brought in to the transitional spirit of the times, rather than participating with our own will. This, in turn, affected how I percieve people and also changed the tendency of my human-figure work from idol-like, strong impression to ambiguous presence.

I tried to examine how each individual naturally becomes part of the current of the times. Each of our novelty and diversity are easily accepted by the Horizontal Society, but also confront strict, rigorous atmosphere of Digital Logic. This, ironically, lead us to be more common rather than stay individual. Equally, there are times when my comrades seem to be obscure and ambiguous, even when I am facing them.

Every presence, to me, seems a lot like the Pinocchio without its strings[15].

I would like to start my research by describing how our society let every individual to shape to be idolized version of ourselves, but eventually end up to form similarly. Then, moving on to the main topic, I will delineate my human-shape sculptural works which are originated and inspired by my own perception to surroundings.

I tried to explore the existence of people by looking closely into my comrades, rather than anyone 'unknown'. It was to free myself from any possible emptiness I could encounter at the end of every work. I wanted to discover the real truth, without any glamorization or delusion. Inevitably, they were again derived from face-to-face relationship with myself, but it was not a completely unknown area. I focused on capturing these people's tangible, individualized figures and molded out of clay. After transforming forms into cement, I tried to represent the unaffected natural state of presence by laying in the same space of material. Afterwards all shapes were converted with cement, and left naturally as it is in the space which was consisted of same material. Ultimately, the process was to express the most natural state of presence. It is my highest aspiration that anyone who would face my work of human sculpture could appreciate the natural, comfortable aspects of human-being.

I desire to explore a 'firefly-like' presence of every human being - a

---

15) In the 1940 Walt Disney's animated film 'Pinocchio', Pinocchio performs on the stage with the song, 'I've got no strings'. Unlike other wooden dolls, Pinocchio could perform without strings but he was not yet enough to be a real child. He sings and dances about his uniqueness - not having strings attached - however the fact that he is still a doll does not change. The audience cheers but with a little mockery. In spite of Pinocchio's aspiration, people see him as a common doll.

presence that is not 'shown' but naturally 'seen' and 'exposed', a presence that is distinguished but at the same time 'dim' and 'ambiguous'. I wish to form these diverse aspects of presence into my work.

keywords : sharing, photogenic, idealization, eidolon, bleach
Student Number : 2018 - 23245